

에디슨 한인 성당

Our Lady of Mercy Parish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Everything that the Father has is mine; the Spirit will take from what is mine and declare is to you.

미사 안내

한국어 주일 미사 오전 11:30

영어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0:00

영어 토요일 미사 오후 4:00

평일 미사 (화) 오후 7:00

(수 - 금) 오전 9:00

Website www.edisonkcc.com

Email edisonkcc@gmail.com

성사 및 교리 안내

고백성사 미사 15분 전

혼인성사 6개월 전 신부님께 연락

유아세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병자성사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예비자교리 매 주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 주일 오전 10:00 - 11:15

안내봉사

6월 모든 성인의 모후 Pr. 7월 사랑하올 어머니 Pr.

친교봉사

6/23 노스브런스워

6/30 메타천

성당 및 사무실 안내

성당 및 The Church of Our Lady of Mercy

사무실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 356-1037

근무시간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성직자 및 평협회장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첸시오

복사

6/16 Aidan Choo, Justin Woo

6/23 Austin Chu, Gina Park

전례 봉사자

일시 6/16

1 독서 오현주 요한

2 독서 백원선 안나

신자들의 기도 맹 베로니카

봉헌 로버트 랭건, 최안토니아

성체분배 이재성, 임문수

6/23

박정훈 베드로

이윤정 프란체스카

곽 율리아

박루수, 박루시아

김영필, 곽신규

오늘의 성가

입 당	81	영광의 주 성삼위	성 체	502 157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봉 헌	210 512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우리는 지금	파견	77	주 천주의 권능과

말씀의 초대 ■ 잠언의 저자는, 하느님의 지혜는 한 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태어났다고 한다(제 1 독서). 바오로 사도는,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다(복음).

제 1 독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혜는 태어났다.>

■ 잠언의 말씀입니다. 8,22-31

하느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한 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심연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그분께서 땅과 들을,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그분께서 위의 구름을 굳히시고 심연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 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4-5.6-7.8-9(◎ 2 가)

후렴.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 2 독서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5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2-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 ▪ 친정어머님 최남순의 영혼을 위하여 - 박화성 가족 ▪ 김인순의 영혼을 위하여 - 한상철(빈첸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비오, 마리안나의 가정을 위하여 - 최 율리야나 ▪ 이정우(바오로) 형제님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빌며 - 최태영(스테파노) 가족 ▪ 오홍순(카타리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오.사.모/홍원기(에우세비오) 가족 ▪ 맹완식(어거스틴), 최태영(스테파노), 손영학(빈첸시오), 임광선(요한) ▪ 박순례(세실리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김정화(로사) 가족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 1,408	KCC 이차 헌금	\$ 367	미사 참여자 수	180 명
OLM 주일 헌금	\$ 3,110	OLM 이차 헌금	\$ 942	감사 헌금	\$ 300 (장수지)
교무금 (\$1,390)	서정근(5-6) 이상화(6)	우영인(5-6) 백상현(6)	장인석(5-6)	김영필(6)	강성천(6) 손종철(5-6)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헌금 - Payable to Our Lady of Mercy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공동체 소식

◆ 야외미사

• 일기관계로 야외미사는 7월 14일로 연기하였습니다.

◆ 2차 헌금

• 6/22-6/23 양일간 선교지원금 모금을 위해 교구청 Sharing Program 대표 Mr. William K. Mosca, Jr. 님이 방문하셔서 과달루페, 탄자니아, 아이티에서 행해지는 선교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실 예정입니다.

• 신자분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 1년 구독 비용: \$48

• 문의: 백영숙 헬레나 (732-841-9982)

◆ 사무실 휴무 안내

• 7/1(월) - 7/9(화)까지 사무실 휴무입니다

◆ 후보 광고주 모집 안내

• 칼라후보로 새롭고 알차게 꾸미려고 합니다. 비용 충당을 위해 광고도 다시 부활하려하니 광고주 모집에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광고는 한 판에 격주로 년 200 불입니다.

• 친교실 게시판에 공시된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자등록서 배부

• 6월 30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하였으니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6월 푸드 콜렉션

• 푸드 콜렉션이 6/29 - 6/30 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가지고 오신 비 신선식품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2019 San Alfonso's Men's Retreat

- 주제: "The Call to Holiness"

- 일시 및 참가비: 9월 6일 ~ 8일, \$240

- 장소: San Alfonso's Retreat House

(755 Ocean avenue Long Branch, NJ07740)

- 문의: Felix Reid (732-259-0979)

Keith Fasanella (732-356-5780)

◆ 부제님 서품 15주년 기념 행사에 수고해주신 사목회 임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꽃다발을 제작하여 도네이션 해주신 백헬렌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미 신심단체 Rosary Altar Society 와 Holy Name Society 주관 Communion Breakfast 행사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감명 깊은 연설을 해주신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 H마트 상품권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6월 30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복사단 모임

• 일년 동안 수고해주신 복사단을 위한 피자파티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 일시: 6월 23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요한 16,12-15(삼위일체 대축일)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 16,7)

1.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성령을 받은 하느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보호자이신 성령의 활동,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나누어 봅시다. (성령은 열매로서도 나타납니다. -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 갈라 5,22)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요한 16,13 나)

2.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오십니다.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내어 주는 분이고, 꾸밈없는 분이며,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어 주는 기쁨을 맛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요한 16,15)

3.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체험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또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루카 9,11 나-17(성체 성혈 대축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루카 9,13)

1.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군중들을 위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제자인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언제, 무엇을 내어 주고 있나요?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루카 9,14)

2.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십니다. 자리를 잡은 사람이 예수님의 양식을 얻습니다. 지금 내 몸과 내 마음이 자리를 잡은 곳은 어디인가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루카 9,16)

3.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오천 명의 양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눔 것’이 가져온 풍요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눔 것’이 가져온 기쁨과 보람을 맛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